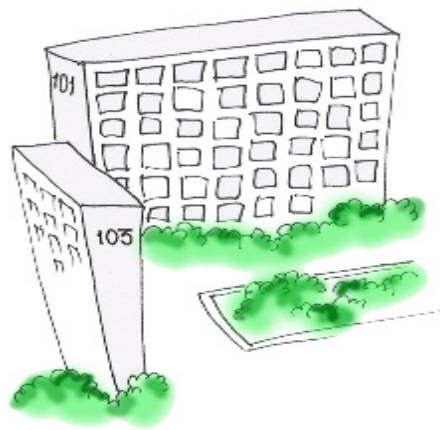


# 생각해 본 적 없어 더 재미있는 일상

아파트란 곳에 살면서...

김승수(똑똑도서관 관장 / [soskim@gmail.com](mailto:soskim@gmail.com))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즐거움과 재미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조금씩, 이것저것 자주 생각하고, 다른 구상을 하기도 하며, 그렇게 천천히 생각난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다보면 그 속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대단한 이론과 화려한 말보단 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2010년 11월 1일-2012년 10월 31일과 **똑똑도서관관장** 2012년 11월 1일-현재을 통해 알게 되었다.

## 1.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地域社會)라는 말의 우리말 뜻은 한자어에 분명히 지리적 경계를 포함하고 있다. 지리적 경계에 근거하여 모여서 무엇인가 하는 지역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라 볼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주소를 쓰자면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2-117번지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분리해보니

'경기도' 너무 넓다.

'파주시' 만만치 않게 넓다.

'목동동(과거 교하읍)' 도로명 주소로는 와석순환로 347번지 실체가 뭔지 감이 오질 않는다.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정문과 후문이 어디있는지 알겠고, 감은 온다.

살고 있는 곳을 지리적으로 대략 이렇게 구분 할 수 있겠는데, 이곳은 나의 커뮤니티(communitiy) 또는 공동체(共同體)라 부를 수 있을까? 특별히 살고 있는 동네와 관련해서는 집 값에 대한 정보, 학군에 대한 관심, 주변 편익·이용시설 위치, 교통편 정도에 대해서만 알뿐 이밖에 특별히 이웃과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의식을 공유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특별히 관심 가질 이유를 찾지 못했고, 관심 가지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그래서인지 살고 있는 동네, 마을에 대한 애정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최근 서울, 경기 지역의 아파트는 점점 더 그 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그 비율 또한 전체 주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 특히 신생 아파트의 구조 또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바뀌면서 이웃을 만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만날 일도 없고, 이웃을 만나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게다. 다시 말해, 불과 몇 십년 전 살고 있는 주거지역을 근간으로 한 공동체의 개념이 지금 시대에는 조금은 낡은 개념이 된 것이다. 서로 관계하고, 주고 받는 실체가 있는 곳이 공동체였는데, 과연 지금도 그 개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웃집이 놀러 가면 연탄불을 대신 갈아줬었고, 아이가 밥을 굶으면 집에 데려다 밥을 먹였고, 부모가 늙으면 대신 집에서 봐주다 재웠으며, 눈이 오면 니 땅, 내 땅 하지 않고 같이 눈을 치웠으며,

음식을 나눠 먹었고, 안부를 물어봤으며, 서로의 경조사를 늘 챙기며, 서로를 시시각각 위하며 살았다. 즉,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고 받는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 불과 몇 십년 전의 일이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이웃간의 관계 또한 시대에 흐름에 따라 급하게 변화되고 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예전만 못한 듯 하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다시 동네의 기능을 완벽 복원하는데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복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복원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과거 동네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게 변화, 적용하면 어떨지? 이런 혼자만의 질문과 답변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되었다.

## 2. 주관적인 동네, 마을에 대한 정의

**동네**[명사]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

**마을**[명사] 1.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2.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마을, 동네 사전상 의미를 보면 거의 유사하고, 최근 유행하는 말로 도찌개찌<sup>정확히</sup> 도긴개긴<sup>일</sup> 듯 하다. 개념상 알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교류를 하는 곳이 동네이자 마을이 될텐데, 조금더 구체화해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서 보자면 아파트 단지 하나는 '동네'의 개념이, 학교를 중심으로 두 세개의 단지와 관공서, 상가가 합쳐진 것은 '마을'이란 말이 더 적합 할 것이다. 조금은 인위적이긴 하지만 주변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이름 아래부분에 공통적으로 '○○마을'이라 표시가 되어있기에... 주관적이긴 하지만 '동네'와 '마을'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볼 때, 나의 활동 영역은 장소를 기반으로 한 지리적인 개념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 즉, 동네가 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는 여성으로치면 화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 남성으로치면 집에서 자고 있던 복장으로 잠깐 외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거리정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네는 기능적인 개념보다는 가족과 같은 개념이 일부 적용되기도 한다. 정서와 감정에 기반하고, 비공식적 관계로 음식을 나누며, 놀이와 잔치를 함께하고, 아이들은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관습과 문화를 배우기도 한다.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에 '옆집 손가락 개수를 알 수 있다'는 말도 나왔을게다. 그런 어릴적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리던 모습을 아파트에서 재현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면 흐뭇해지지만 그런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예를들어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동네 삼촌이 장가간다고하면 동네가 떠들썩하게 합잡이가 함을 들이곤 했는데, 이젠 그런 모습의 재현은 이웃의 무관심과 신고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지금 시대에 맞는 동네의 기능을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마을만들기'란 명목의 공공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마을 만들자'는 외침은 번지르한 하드웨어보다는 관계중심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용어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웃간의 관계를 통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재조명, 사람

들과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 이를 통한 동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생성, 동네와 이웃에 대한 관심 증진 등. 과거에는 자연스러웠던 이웃과의 일상과 교류가 지금은 이상적인 모습이 되었기에 공동체 복원의 의미에서 '마을만들기'란 용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또한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아파트란 특성이 여러 한계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아파트라 가능한 장점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겉으로는 무관심해보이는 사람들 또한 과거 이웃과의 관계를 그리워 한다는 것이다.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다. 무엇인가 관계를 하고 싶지만 아파트란 만들어진 틀 속에서 함께할 꺼리가 적고, 방법 또한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서투를 뿐이다.

### 3.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동체, 마을, 공유, 공유경제 등과 관련한 전문가들은 좋은 사례와 훌륭한 연구, 이론을 이곳 저곳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례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제시하는 바를 자신이 일하고 있는 또는 살고 있는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그러니 총론보다는 각론을, 말보다는 행동, 이론보다는 실천을 해야 할 때가 요즘인 듯하다. 남들이 했던 일들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많은 생을 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계획한다고 완벽히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촘촘히 기획회의를 반복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은 늘 생기기 마련이다. 필요에 의해, 해결해야 할 과업에 대해 대략의 흐름이 생각나면 그냥 하는 거다. 하다보면 그렇게 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힘을 받게 된다.

숫하게 반복 하다보면 여러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를 통해 노하우와 새로운 안목이 생겨난다. 창의적이란 말 또한 일상의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는 관찰하는 습관부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일 것이다. 다른 동네에서 좋다고 하는 것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장<sup>2010.11.1-2012.10.31</sup>」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관심도 크게 없었고, 이들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래서 관심가질 꺼리조차 안되었던 영역이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부녀회원들의 제안과 학교 수업에서의 아이들과 약속한 과제를 하기 위해 조금은 엉뚱하게 시작한 것이 동대표였고, 무식해서 용감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2년 후 흔쾌히 퇴임할 수 있었다. 그 엉뚱한 실천이 바로 일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동대표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능한 것부터 찾아보자는 말이다.



#### 4.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만나는 합의의 과정

합의의 과정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모여 논의하자는 것이다. 과업중심보다는 과정중심의 관점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활동의 방향이 결정되며, 참여주민은 성장하게 된다. 전체 주민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살아온 세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파트이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다 말할 수 없기에 존중하고, 잘 들어야 한다. 갈등은 당연한 것이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그리고 합의를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할 때 주민들은 성장하게 된다.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존중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급하다고 과업을 위해 달려갈 경우 주민은 상처받게 된다. 천천히 합의의 과정을 통해 선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한다. 그렇게 성장한다.

##### **「사례 1: 주민의 참여가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우리동네 컨퍼런스」**

우리 아파트에서 변화가 필요한,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컨퍼런스를 기획 한 적이 있다. 플랜카드와 포스터를 제작해 광장, 엘리베이터, 현관, 놀이터 등 보이는 곳에 붙여 주민들의 참여를 제안하였다. 홍보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 발걸음이 뜸했던 아파트 홈페이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전화, 문자, 인터폰, 메모 등)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제안과 다양한 의견이 컨퍼런스 주제로 선정되어 주민이 주신 제안은 열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었다. 동대표와 부녀회원은 코디네이터가 되어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저녁8시즈음 한다. 그래야 퇴근하고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진다. 떡과 과일, 다과 등 다양한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하고, 아파트 홈페이지 주소가 찍힌 기념머그컵, 참가자들의 명찰,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포스트잇과 전지 그리고 다양한 필기구도 준비했다. 컨퍼런스 개최시간이 되니 주민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어느덧 경로당에 주민들이 뽁뽁하게 들어찼다. 긴장되고, 흥분된 마음으로 컨퍼런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월드메르디앙 주민 컨퍼런스-Change the Worldmerdian'이 시작되었다. 각 테이블의 코디네이터들은 재차 세부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주민들은 평상시 보고 느꼈던 바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이야기 방식에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컨퍼런스가 뭘지 정확히 이해 못하신 분도 더러 있었지만, 각자가 아는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을 자유롭게 활용했다. 시간이 지나 열 개의 테이블에서 의견을 모아 전지에 붙이고 정리하니 꽤 많은 의견이 모였다. 사소한 것이라도 다 적고 붙였더니 그 양이 꽤 되었다. 불만사항을 적은 분도 있었지만 '뭘 어떡하?'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각 테이블에서 정리된 이야기, 즉 우리 아파트에서 변화하면 좋은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자신이 참여한 테이블이 나오면 박수도 더 크게 치고, 심지어 환호성까지 터져 나왔다. 다른 테이블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안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발표 자료를 꾸미는 테이블도 군데군데 보였다. 화기애애하게 발표가 마무리 되었고, 주민들이 내어놓은 제안들에서 공통된 것을 제외하고 나니 100여 개 정도로 정리되었다.

참여한 주민의 100여개가 넘는 의견 중 아파트 시설에 대한 보수와 투자가 대부분이었고,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한 도서공간 만들기(도서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의견과 제안도 더러 있었다.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속 시원히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참석한 주민들은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열심히 이야기한 듯 보였다. 잠깐 동안의 만남이라 아쉽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2시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우리아파트 첫 주민 컨퍼런스는 마무리가 되었다. 컨퍼런스 이후 컨퍼런스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영역별로 구분했고, 그렇게 2012년 우리아파트 잡수입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되어 계획대로 하나하나 실행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별거인가. 주민의 참여와 제안이 힘이 있음을 알고, 주민 스스로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 소소한 변화를 서로가 지향하려 노력하는 것. 규모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만나려는, 의견을 수렴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 우리 아파트는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요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주민회의 사례 들여다보기



판을 통해 '우리 아파트에서 개선해야 할 점 및 신규로 공사하고 싶은 점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사전 공모해 주민들로부터 90여 개의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각 동의동 대표와 부녀회가 주제별로 진행을 맡아 자유로이 토론을 해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했다. 이후 주민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고, 10개

파주는 전형적인 농촌에서 차츰 도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의 운영자들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또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러한 소문의 진실을 확인해보고 싶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 당선된 한 사람을 만났다.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김승수 회장이 바로 그다. 그는 38세의 젊은이었다. 김승수 회장은 불신의 풍토를 없애고, 주민이 진정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주민회의를 통해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주민회의는 아파트 홈페이지 및 각 동의 게시

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안은 2012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주민회의와 다양한 주민활동의 사례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실무자 교육에서 발표되는 등 타에 모범이 되고 있다. 전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모아진 주민의 의견을 주민과 함께 충분히 토론하고, 아파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자와 주민이 기존의 운영형태와 사뭇 다른 변화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주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운영자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다른 아파트 운영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일이다.

서민기자 윤소자

## 5. 신뢰, 어렵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예전에는 가족만이라도 가능했었던 말이지만 그조차도 요즘시대에는 '과연?'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재산 때문에 싸우고, 살인까지 하는 마당이니 이웃과의 관계는 오죽하겠는가 말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고, 주차문제로 싸움을 하는 일은 이제 큰 이슈도 되지 못한다.

서로가 믿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더 자주해야한다. 부정적인 경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들이 나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웃과 함께 해서 훈훈했던 경험, 누군가와 작은 것이라도 나누었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 좋은 지도자를 만나 소소한 변화를 지켜보고 참여했던 경험, 이 모든 것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감시하게 되고, 비난하게 된다. 대안없는 비판은 서로의 좋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근거를 갖고, 토론을 해 나가야 한다.

이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일상에서의 실천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자신은 쉽게 나서지 못하는 작은 역할이라도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격려와 믿음을 보내야 할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는 염려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신뢰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아직 세상엔 믿지 못할 사람보다는 믿을만한 사람이 더 많기에.

반장, 통장, 동대표, 부녀회, 녹색어머니회,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에서 묵묵하고, 알차게 활동하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 정작 그 흔한 활동도 하지 않으며 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박수치고, 지지하고, 함께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데 못할 일이 있을까?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대하면 생각지 못한 일까지 가능할 것이고, 안된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되지 않는다.

### 「사례 2: 우리 동네 이야기를 알리게 된 시민교육박람회」

우리아파트는 이웃의 아파트,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여서가 아닌, 주민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민주화기념운동사업본부란 곳에서 '시민교육박람회'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아파트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역시나 동네아줌마들과 이 대회를 준비했다. 더군다나 대상은 300만원을 준다는데, 그 돈이 있으면 다른 프로젝트가 가능하겠다 싶어 우리아파트도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 공적인 펀딩을 시도해보는 경험. 그 과정을 통해 또 배울 것이 있기에 더욱더 의욕을 불살라 참여주민과 함께 준비를 했다. 시민단체가 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아파트가 참여하게 된 경우는 우리가 처음이었다. 전시부스로 직접, 발표준비도 직접하여, 우리아파트가 당당히 본선에 진출한다. 우리아파트가 참여한 주제는 '주민컨퍼런스'였다. 주민의 의견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규모에 맞게 집행한 사례였고, 그로 인해 우리아파트는 최우수상, 15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이런 결과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이다. 그러니 상금 150만원은

주민과 함께 하는 마지막프로젝트 '우리동네 음악회'에 고스란히 사용되었다. 준비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사진 2] 시민교육박람회 전시부스 / 2012. 9.11

### 「사례 3: 말한대로 다 이루어진 음악회 그리고 퇴임식」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다. 임기를 10여 개월을 남겨둔 어느 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음악회 하려 한다'라고 특 이야기를 내뱉은 적(별 기대 없이 혹시나 하는... 뭐 그 정도)이 있는데, 친구들 끼리 수근수근하더니 스마트폰의 달력을 각자 켜며 대략 날을 정하고, 연주자는 누가 간다는, 공연 스케줄은 또 어떻게 저떻고, 그리고 누가 본부장이고... 뭐 이거 농담인가? 싶을 정도로 일이 쉽게 정해져 버렸다. 그때 나의 기분은 기대는 되는데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불안했지만 행사를 준비할 상금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은 너무 쉽게 일이 진행되었다. 친구들, 주민들과 같이 공연할 무대와 공간을 보기도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그리고 연주자에 대한 최종 확인이 그리 어렵지 않게 결정되었다. 확실한 것은 없었는데 그렇게 두렵지도 않은.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났고, 모든 것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예정되었던 연주자가 빠지면 또 알음알음 연결이 되어 자리가 메워지고, 무대는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꾸미면 되었고, 생각이 더해지면 또 물어서 연결하면 되는, 말 그대로 '말한 대로 다 이

루어 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들 중 음악회의 제목도 정해지게 되었고, 제목에 따라 포스터, 걸개 그림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지게 되었다. '전 우주의 음악회' ... 너무 근사한 이름이다. 드디어 우리아파트에 '전 우주의 음악회'가 열리는 날. 사람이 딱 찰 이유도 없었으며, 연주를 그리 잘 할 필요도 없는,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면 되었고,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춰도 되는, 사회자가 주목을 끌기 위해 어떤 어색한 농담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가 좋은 공연장이 되는, 그런 곳에서 순서에 맞춰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참여하고 있는 각자가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을 알아서 하면 되었고, 음악회를 보던 아이가 "나도 집에 바이올린 있는데, 가져와서 하면 안되요? 하고 싶은데..."라고 물을 정도로 음악회는 부담 없었고, 잔잔했다. 평소 듣기 어려운 트럼펫, 아코디언, 일렉톤도 연주되었고, 기타와 우쿨렐레도 가을날과 너무 잘 어울렸다.

2년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되며 처음 상상했던 '비둘기 집'을 짧은기간 배운 기타로 연주하며 주민과 인사할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 2년이 금방이더라. 그리고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기억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가운데 아내와 눈이 마주치며 순간 울컥했다. 이럴 때 좀 더 환하게 웃으며 하면 좋았을 텐데, 울컥했다. 아니 울었다. 다행히 연주하는 친구들이 내 뒤를 둘러 감싸줬고, 같이 노래를 부르며 힘을 불어넣어줬다. 그렇게 처음 상상한대로 노래 부르며 주민들과 인사할 수 있었다. 말한 대로 상상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더도 덜도 아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음악회가 바로 '전 우주의 음악회'였다. 그리고 그날이 2년간의 입주자대표회장을 퇴임하는 퇴임식이기도 했다.



[사진 3] 전우주의 음악회 & 퇴임식 / 2012. 10.21



## 6. 공유, 공유경제를 제안 하기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요즘들어 많은 지자체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공유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먼저 그 공유경제에 우리가 관심가지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대량생산과 과잉생산으로부터 발생한 '남는 재화'를 나누고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안 입는 옷부터 자동차, 집, 공간까지 소유의 개념을 뛰어넘어 모두 협력적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의 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소유의 개념이 강했던 부분들이 공유라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수입을 증가시키고, 많이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소유한 경제주체에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소비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유경제가 최근 많은 화두가 되고 있지만 많은 대중과 시민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남의 이야기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리 좋은 선진기술이라 할 지라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뜬구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먼저 '공유(Sharing)'은 알팍한 아이디어나 단기적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라기 보다 이전부터 우리는 해오고 있었던 일이다. 해왔던 일들을 새롭다고 하는 것, 또는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갖는다고 하니 사람들은 조금 의아한 지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도 그런 경우는 많지만...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웃들은 역할을 따지지 않고, 알아서 집에 있는 삽, 괭이, 빗자루와 같은 장비를 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음식이라도 내어와 힘을 주곤 했었다. 옆집에 아이가 밥을 못먹고 있으면 조건 없이 밥을 먹이고 아이를 자식처럼 돌봐줬으며, 이웃집의 연탄불을 갈아줬고, 장에 가는날이면 같이 갈 사람을 미리 알아 태우고 다녀왔다. 글을 못읽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편지를 읽어줬고, 이장님 집 전화기와 텔레비전은 동네에서 유용한 소통의 도구로 공유되기도 했다. 자기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 것이 법적처벌을 받고 있는 요즘 시절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이랬던 우리들인데, 요즘은 왜 낯설고 이것을 공유+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 추세라고 해서 근본을 넘어서 경제적 논리를 아무곳에나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공유라는 것은 새로운 경제적 이익창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임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있었던 '협동'과 '신뢰'에 대한 복원이 먼저라 생각한다. 누군가와 무엇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래야 할 '조건'과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문화적 풍토가 중요하다. 현재의 사회는 이익사회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보다 근간을 이루어야 할 것은 공동사회라는 말이다. 정서와 감정에 기반을 두고, 관심과 규범이 법보다 우선한 사회적 규칙과 사회통제의 기능을 만들고, 조금더 비공식적 관계를 통한 공동체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위에 공유경제를 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를 'Sharing Economy'로도 볼 수 있으나 'Collaborative Consumption'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협력적 소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집에 사용하지 않는 책, CD, 비디오를 욕구가 일치하는 즉 우연히 자기가 판매할 상품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벼룩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실제 하고 있는 모습일테고, swaptreewww.swaptrees.com 와 같은 것이 온라인에서 실제 연동되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이 또한 핵심은 '신뢰'가 내재되어있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돈거래 없이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과 내 물건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신나간 생각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부정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고, 서로 믿기 때문이다. 각종 기술들이 기술이 낯선 사람들에게 까지 신뢰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지리적 영역에서 이젠 기능적 영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글로벌지구촌이란 말이 그리 어색하지도 않은 이유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물물교환, 거래,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는 공유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심 또한 공유를 하기 앞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믿음, 즉 친구와 이웃의 진짜 의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계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자원(물적, 인적, 사회적)을 공유하며, 소유하는 것을 더욱더 활발히 공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활발한 공유, 공유경제를 위해서는 무가치와 낭비의 거대한 유물로부터 깨어나려는 인식을 기반으로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것이 과잉소비와 낭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에...

**소유하는 것은 곧 공유하는 것이고, 소유보다 접근하는 것이 낫다.**

공유가 좋다고 말하는, 공유를 해보라 제안하는 전문가는 주변에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정작 본인 스스로는 이웃과 어떤 공유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지금이다. 알았으면 행동하라는 말 쉬워보이지만 쉽지 않다. 공유도 마찬가지다.

#### **[사례 4: 별도의 건물이 없어 만들어진 '똑똑도서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중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아파트 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었다. 실제 도서관이라기보다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주민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에 대한 요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허나 10년이 넘은 아파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신축은 비용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으로 실행하기에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행하기 위한 소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다. 모이는 장소는 집이 되었고, 어떤 형식과 틀보다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서로간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주민들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자기개발과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공간, 학교, 도서관, 성장, 만남, 배움, 나눔, 플랫폼...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 가지의 핵심단어들이 정리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는 매개를 찾게 되면서 그 방법으로 '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주민 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매개로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는 것이 아닌 책을 통해 만남이 가능하고, 그 만남이 새로운 문화 활동, 지역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책을 통해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가족 이야기와 더불어 문화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상황을 바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요구도 있어 '학교'와 '도서관'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매개가 '책'이 되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문화운동, 지역운동이기에 '학교'가 아닌 '도서관'으로 결정하게 된다. 물론 자본도 직원도 없이 상상만으로 첫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다.

주변 단지과 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모일 공간은 의외로 많아 보였다. 공공도서관도 가까운 곳에 있지만 실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고, 주변 새 아파트의 도서관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였으며, 특히 기증된 책들은 집에서 버리기 이전의 것들이 많아 관심과 흥미도 덜할 뿐 아니라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였다. 작은 결론 중 하나는 단지내 별도의 도서관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 물리적 공간은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정의했다. 각자 살고 있는 집이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집에는 책이 꽂혀 있고, 대부분 한 두번 읽고 나서는 책장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있다. 바로 그 책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목록을 공개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115동 1602호 김승수의 소장도서 리스트"라고 하면 끝.

이렇게 목록을 공개한 아파트 주민은 사서가 된다.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책을 대여하는 시스템이다.

"115동 1602호는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일요일 오후 6시-8시에 오시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식이다.



똑똑도서관의 코디네이터는 이런 정보를 특정매체를 통해서 교환하고 리포트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knocklibrary.org)와 페이스북을 만들면 된다. 컴퓨터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소식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훌륭한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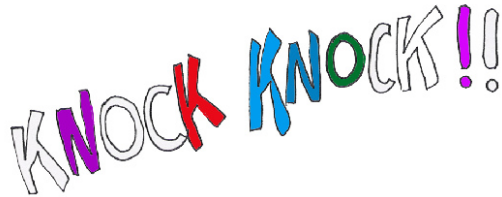
똑똑도서관은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나눠보고, 돌려보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들은 서먹하지 않게 이웃의 집에 노크할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책을 통해 이웃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가급적이면 작위적이지 않게 노크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똑똑...

누구세요?

네...책빌리러 왔어요...

어서오세요...

The text 'KNOCK KNOCK!!' is written in a playful, hand-drawn style. The first 'KNOCK' is in purple, red, and blue, while the second 'KNOCK!!' is in blue and green. The letters are outlined and have a slightly irregular, artistic feel.

이런 풍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책을 내 주면서, 그 책을 먼저 읽은 사람으로부터 추천사도 들을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고, 이웃과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독서문화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다는 부가이윤이 생겨나게 된다.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의 도서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노크와 함께 시작되는 도서관이므로 이름은 <똑똑 도서관 Knock Knock Library>이 된다.

더불어 일상에서 책을 읽게 되며, 자기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적 없는 수다보다 발전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배움에 대한 새로운 동기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책을 통해 이웃도 만나게 되고, 책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과정의 기본은 주민간의 신뢰가 기반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천천히 조금은 더디게 그리고 꼼꼼히 일을 진행해야 한다. 수를 늘리고, 성과를 재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조작할 필요도 없다. 그저 마을에서, 동네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상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마을은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현재 생활에서 공유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마을이 조금씩 풍요로워진다.

## 【에필로그】

2016년 10월 현재 똑똑도서관은 대전, 서울, 시흥, 원주, 속초, 울산, 강화, 용인, 수원, 제주 등 전국 80여개 지점이 생기게 되었고, 매년 1회 전국관장단 회의와 지정기적인 컨퍼런스 또한 2015년 10월 개최되었습니다. 같은 생각 다른 이야기는 작게 지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간의 느슨한 연계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에 든든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어때요. 똑똑도서관 관장이 되어보시겠어요?



[사진3. 똑똑도서관 전국관장단회의 / 2015. 1. 23]